



# 대안가정

통권9호 (2005년 봄/계간) [http : www.daeanhome.org](http://www.daeanhome.org)

- 2. 스케치 / 2005 정기총회
- 4. 집중 / 큰아빠의 일기
- 5. 대안가정 일기(9가정 발췌)
- 12. 특집 / 사랑의 콘서트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5. 5. 1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한

# 『2005년 정기총회』

2005년 2월 17일 오후7시, 진석타워 웨딩홀에서 『2005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총 55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2004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05년 사업 및 예산 승인 ▲정관개정 ▲임원선임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안가정 가족들이 참석하여 더욱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회원과 대안가정 가족들로 가득찬 회의장. 맛있는 뷔페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 안가정 운동본부 정기총회



▲ 이수형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씀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진지한 회의모습!! 그러나 지루해 할 아이들을 위해 회의는 최대한 빨리~!!



▲ 신입이사 선임. 배성우, 배성준 이사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대안가정 소개와 선물 증정!! 예쁜 바구니 속에 사탕과 초콜렛이 가득~ 아이들은 정말 신났겠죠??



▲ 장기자랑 시간~ 경복 맛마을 대안가정 가족들의 합창. 끝내줬습니다.



▲ 이사님들의 남성중창 멋졌습니다. '고향의 봄' 열창 중.

## 새로운 이사님 소개~!!

2005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배순균, 배성우, 이병희 세분이 신입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배순균 신입이사



배성우 신입이사



이병희 신입이사

### 신입이사를 대표해서 배순균 이사의 인사글.

안녕하십니까? 대안가정운동본부에 이사로 부름 받은 배순균 입니다. 제가 이사로 부름받기 전까지 이사는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수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했지요. 이사 임명장을 받은 지금도 여전히 이사라는 옷이 나에게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할 일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사라는 옷을 입혀 준 것은 그저 입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준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생각합니다.

대안가정, 우리 가정에 위탁 아동이 오기 전까지는 대안가정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열어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믿습니다.

일이란 가만히 있어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사라는 직함이 나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더 중한 이사의 옷을 입고 찾아가 봅니다.

당신은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이사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사로서 부담을 느끼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또한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나의 이 선택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3. 28. 배순균

## 큰아빠의 일기 / 아들이 생겼다고 ?



조수철 / 대안가정 대현이네 아빠

### ◆ 초기

여름 캠프 중에 아내에게서 아들이 생겼다고 전화가 왔다. 이 나이에 아들이 생겼다고 하니 잠시 멍해졌다. 아내 는 당황해 하는 내 눈치를 살피고는 자기가 아들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안가정이 필요한 아이가 생겼는데 대려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캠프를 마치고 오니 대현이가 와 있었다. 가름한 얼굴에 무척 어위었고, 오른쪽 대문니 는 빠졌고 헛바닥은 감염으로 흉한 흠이 나있었다. 그러나 눈동자가 크고 동글어 잘생겼고,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닮았다고 했다. 처음에 대현이는 아내와 달리 나를 경계의 눈빛으로 대했다. 친엄마는 모르지만 큰아빠는 기억하고 있어서 나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 ◆ 대현이의 습관들

대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집, 어린이집 등을 옮겨 다니면서 눈치발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고집이 세고 울기를 잘했다. 지난 여름, 물가에 놀러 갔는데 대현이는 통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다. 물에 몸을 적시다가 옷이 젖는 것을 혼날 일로 여겨서, 결국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다. 대현이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양치질, 옷입기, 밥먹기 등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 잘못해서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잘 못한다.

대현이의 좋은 습관은 학습 습관이다. 지나가는 말로 가르친 것도 혼자서 다시 열거거리면서 반복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노래들과 영어들이 참 많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참 좋다. 착 달라붙어서 온갖 재물을 다 떨어가면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편이라 사람들은 대현이를 참 좋아한다.

### ◆ 교육

도래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좀 뒤떨어지는데,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현이에게 한 글학습지를 하게 하면서 학습지를 아끼지 말고 달도록 갖고 놀도록 했더니, 공부로 여기지 않고 놀이로 생각해서 잘 갖고 논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한다. 너무 개구쟁이고 아이들을 못 살게 굴고, 짓궂다. 상처도 나고, 후도 붙여 오고, 명도 들어서 염려도 되지만 이젠 당당한 대현이를 보게 되어 기쁘다.

물을 두려워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물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함께 놀며 가르쳤다. 우리는 들어서 욕실에서 흠뻑 벗고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물싸움도 한다. 이제 저녁이 되면 대현이가 먼저 말한다. 큰아빠 흠뻑 벗을까요? 그럼 흠뻑 벗고 놀자! 대현이는 이제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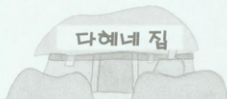
내 아이 들을 키울 때는 매를 들어가면서 키웠다. 그러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그럽게, 사랑을 가득 실어서 허무하루를 산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현이도, 우리도 사랑을 배운 것 같다. 우린 관계가 참 좋다. 처음에 엄마가 없으면 울던 대현이가 이제는 나와만 있어도 잘 지낸다.

### ◆ 대현이로 인한 부담

대현이를 위해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대현이가 다칠까봐 염려도 된다. 내 아이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지만, 대안가정운동본부와 친부모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니 때때로 염려스럽고 두렵다.

### ◆ 대현이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다. 받는 사랑은 만족할 수 없지만 주는 사랑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대현이를 키우며 주는 사랑을 배운다. 불행한 환경에 처한 아이가 나를 만나, 나의 사랑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곧 행복이다. 그것은 대현이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다. 나는 대현이를 키우며 이런 기쁨을 누린다.



### 2005. 2. 7 / 저 좀 도와 주실까요?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누구라도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행사가 있어서 어제 대구에 다녀왔잖아요? 저는 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강당에 자리 잡고 잘 놀던 다혜가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안아주고는 엄마는 지금 나가야 하니 아빠와 있으라고 했죠. 아빠가

조~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데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부드럽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엄마는 지금  
노래하러 나가야 된  
다고, 노래하고 와  
서 안아줄게 라고  
요.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 싫은거  
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럴 수  
있고 당연한 것  
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아, 글썄  
다혜가 복도에 살짝  
드러눕더라고요. 정말  
잠자리에 들듯이 살짝  
드러눕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후  
후... 그다음엔 본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는 거예요. 핑굴핑굴 하면서  
말예요. 얼른 안고 나왔죠. 다혜를 아는 사람들도 많  
았는데, 밖으로 나오자 아예 자리를 쾅터군요. 아무리  
달래도... 그래서 말했죠. "실컷 울고 나면 엄마한테  
말해라. 저기서 기다릴게" 그러고는 다혜가 볼 수 있  
는 곳에 조금 떨어져 있었죠. 아무 관심없는 척 최대  
한 표정을 관리하며, 다혜는 몇 분을 그러고 드러누  
워 핑굴핑굴을까요? 결국은 다 울었노라고 손을 내밀기  
에 다시 데리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진이 빠지던지.  
친구는 그런 우리 모녀를 보고 계속 웃어대고, 지나  
가는 사람들도 재밌어하고, 놀이가는 고집에 잘 대처  
하는 방법을 조언바랍니다.

### 2005. 3. 8 / 새출발

삼월이 되면서 우리집은 한바탕 행사를 치렀다. 둘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다혜는 놀이방에 간다. 엄

마는 주중에 대학원을 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이 없었나보다. 거의 매일 들락거리던 홈페이지도 못 봐왔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에 질서가 잡혀간다. 사실 다혜를 놀이방에 보내고는 은근히 걱정을 했었는데, 웬걸~ 자다가도 놀이방 가져고 하면 벌떡 일어나고 몇 번이고 놀이방 갈까냐고 물으면 간다. 재미있냐고 물으면 재미있다고 하고 가끔씩은 놀이방에서 배운 노래를 혼자서 흥얼거린다~ 그것도 무슨 노래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5월이 되면 우리 다혜를 만나지 1년이 된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렀고 다혜도 기쁘하고 대견하다.

### 2005. 3.12 / 내가 할게!

요즘 다혜의 말이 많이 늘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내가 할게!" 옷을 입을 때, 밥을 먹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내가 할게"란다. "내가 할게"란다. 조금만 도와주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얼굴에 만족감이 주루루 흐른다. 다혜는 지금 잠들었다. 조금 늦은 취침이다. 다른 이들에게도 잘 가고 인사도 잘하고 애교도 많아서 귀염을 받는다. 문득 다혜를 보노라면 언제 저렇게 컸지? 하고 놀란다. 물을 빼고 누워자는 다혜의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와 보인다.

### 2005. 3. 29 / 쉬~~하기^^

다혜가 용변을 볼 때마다 번기에 앉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예전에 올 아이들이 쓰던 방법을 다시 활용한다.

- 1단계 : 옷을 내린다
- 2단계 : 발판을 밟고 올라선다.
- 3단계 :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올라앉는다.
- 4단계 : 볼일을 본다^^
- 5단계 : 조심해서 내려온다

어찌 보면 쉬운 과정이지만 다혜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혜의 '쉬'에서 해방되었지요.^^~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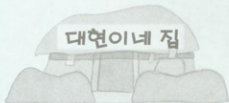
## 2005. 3. 4 / 첫 걸음마부터

요즘은 어떻게 더 예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답니다. 아니 그 반대일지도 모르지만... 예진이 가까이 온 것 같다가도 한 순간 멀어져 보일 때 속이 상한답니다. 평소에는 어시(?) 같다가도 일 저지른 다음에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심보는 무엇인지...

어제는 뽕반죽 하느라 바쁘는데, 예진이 화장실에서 울 일보고 나오면서, "엄마, 뭐해? 뽕 만들꺼야? 나 티비 볼꺼야" 얼마 있다가 처음으로, "엄마 나 업어줘" 하면서 뒤에서 매달리기에, 이제 마음을 여는가보다 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밖에 나가던 남편이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이거 뭐야?" 예진이 응어가 급했는지 팔꿈치 바닥에 질펀하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벗겨보니 속옷에도... 그러면서도 농성을 부린 것을 생각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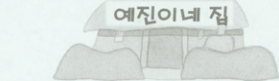
이런 일까지도 엄마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다가오기가 멀지만 한가롭습니다. 그냥 혼자 속이 상합니다. 너무 제가 성급한 마음으로 달려왔나 봅니다. 이제 좀 천천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유아원에 입학한답니다. 이번 주에 미리 가서 가방, 옷을 받아와서 입어보고, 입이 찢어졌답니다. 자편서도 히터덕거렸답니다. ㅎㅎ



## 2005. 2. 21 / "엄마 나 행복해"

영어 비디오편 보던 대현이가 "엄마 나 행복해!" 하며 품에 안겼다. "그래 우리 대현이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현이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했다. 한글 깨치기를 하고 어린이집을 다닌 지 이제 5개월이 되었다. 이름도 쓰고 숫자와 받침이 없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교육을 시키는 보람이 있다. 서두르지 않는다. 아직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하지만 조금씩 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현이는 집중력이 뛰



우이 좀 훌륭명 큰 것 같은데, 저는 딱 맞다나요? 나중에 사진 보여 드릴게요.

## 2005. 3. 29 / 예진 어린이집 가기

여시가 따로 없다. 아침에 잠꾸러기를 깨운다. 이젠 혼자 세수도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제법이다. 그동안 엄마의 갈고 닦은 솜씨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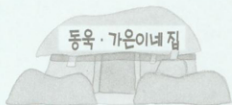
아침에 보면 가판이다. 고래고래 깨워서 바둑바둑 씻기고 꾸역꾸역 메긴 다음 바둑바둑 땀겨서 목은 다음, 머리핀으로 멋들어지게 장식하면 준비 끝이다. 이쁘게 해준다고 칭찬도 있는 것이 기특하다. 그래도 그 사이에서 자기 할 짓 다하고 놀 것 다 노는 예진이를 보면 분명 엄마보다 한 수 위다.

어린이 집에 가기 전에 엄마의 혼신(?)을 받는 예진이는 '엄마 어제 한 이야기 말고 딴 거 업어' 하는 표정이다. 다음은, 기다렸다는 듯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훈련받은 인사법이다. 그리고 신나게 어린이 집으로 출발!

어나고 관찰력이 아주 좋은 편이다.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함께 영어 비디오편 본다. 그 결과 간단한 생활 영어를 제법 한다. 우리 부부는 대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따뜻한 봄을 느낀다.

## 2005. 3. 17 / ~^^~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너무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해 죄송한 맘... 저희도 행복하구요. 우리 대현이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지 일찍 잠이 들었네요. 다른 날은 아직 초저녁이거든요. 대현이를 키우면서 '예뻐지셨네요' 혹은 '짙어지셨네요' 이런 말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렇게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네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하는가 봅니다. 대안가정 사무실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5. 1.31 / 가은이의 걸음마**

앞으로 세 걸음 뒤로 세 걸음, 그러다 중심있고 주저않기, 또 일어서서 반복하기. 엉덩이가 아프지도 않은지 하루에 수 십 차례나 반복합니다. 그러다 혹 넘어지면 방바닥을 때리기도 합니다. 넘어진 것을 방바닥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아이가 지금이 가장 예쁜 때인데 큰 사랑을 못 받는 것이 가슴 아롭니다. 걸음마 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때 아쉽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다리 사이로 얼굴을 보이며 웃고 있습니다. 얼마

나 많이 머리를 바닥에 대었는지 이마가 성한 날이 없습니다. 또

목청은 얼마나 큰지... 동육이는 서랍이나 물건들을 만지지 않는데 가

은이는 잠시 조용하다 싶으면 벌써 일을 벌려요. 큰오빠

서랍만지기, 화장실 변기통에 손넣기, 신발장에 서서

신발만지기, 책장에 책 때기 등등. 혼나는

것을 아는지 두 손을 머리에... 가은이의 노는 모습이 예쁘지요.

다음에 만날때 지금보다 더 잘 걷는 모습이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2005. 3.16 / 불이 왔어요**

불이 왔어요~ 불이 왔어요~ 매리리 둘러주세요. 하지만 우리집은 겨울이네요. 왜냐구요? 두 아이가 웬 콧물! 날씨가 변덕을 부리니 코가 가만히 안 있네요. 다행히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요. 아파도 장난은 너무 잘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웃고...

며칠 전에는 치과에 갈일이 있어서 동육이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치료받는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것도 대성통곡을. 아프긴 내가 아픈데 왜 우냐고요. 누나들이 사랑에 풍선에 갖은 방법을 다해서 달래고,

시끄럽긴 했지만 즐거웠어요.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하긴 가은이랑 소아과병원에 가도 동육이는 울어요. 가은이는 너무 씩씩하고,

**2005. 3. 19 / 아쉬움!**

아이들이 가야할 때가 되니 아쉬움이 많네요. 그렇게 시켜도 안하던 말을 어제 아침엔 혼자서 하고, 더 친한 척도 하고...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해 교회를 다녀왔어요. 점심은 집에서 먹고 지금은 잘 자고 있습니다. 큰딸이 아이들이 가면 또 아이가 오냐고 묻네요. 이왕이면 아기가 왔으면 한다고.

아이들이 친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가서도 지금까지 잘 웃고 잘 자왔으면 합니다. 동육이는 이제 어린아이를 재미있어 하는데,

친구랑도 잘 놀고.. 선생님들도 많이 아쉬워 할 거예요. 동

육이가 노래도 제일 잘하고, 기도할 때 아멘 소리도 제일 켜요. 아마

많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교회 영아반에 아이가 4명인데 동육이와 가은이가

가 가면 2명밖에 없어요. 4명중에 동육이가 노래도

제일 잘하고, 기도할 때 아멘 소리도 제일 켜요. 아마

많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2005. 3. 31 / 기본**

너무 이상하다. 배고프다고 보채는 가은이도 없고,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동육이도 없다. 한쪽이 텅 빈 느낌! 아이들이 보고 싶고 생각이나 컴퓨터를 두드려본다. 우리집 아이들은 대단하다. 가은이와 동육이의 자리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알뜰기도 하고, 괜히 속상하고 슬프고... 눈물이 난다.

오늘 남편의 생일이다. 음식을 놓고 또 한민 울적해졌다. 상위에 아들이 올려놓은 가은이 손가락! 오늘을 지나고 보낼걸, 케익을 보고 좋아하던 동육이가 떠오른다. 지난번에 케익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끝나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크림을 찍어 먹던 일. 낮 동안 정신없이 움직이다 지쳐이 되니 아이들 생각이 더 간절하다. 지금은 잘 자고 있겠지. 보고 싶다. 두 아이의 자리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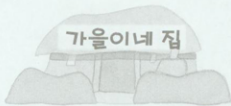


2005. 2. 7 / 이번 설은 아빠와 같이~

오늘밤만 지나면 가을이는 아빠와 설 명절을 지내러 집으로 갑니다. 시택에 데리고 갈리러 시골집이 너무 추워 가을이가 지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번 설에는 그냥 가을이는 아빠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걸음마도 몇 발자욱 혼자서 하고, 등만 보이면 업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와 같이 잘 놀고 장난도 치고, 병원에서 매달 먹는 약도 한 가지 줄고, 건강하게 잘 큼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위탁아동을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설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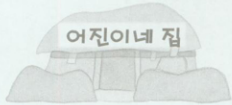
2005. 2.23 / 가을이 돌 잔치

2월 20일은 가을이가 엄마에게서 남들과 같이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조촐하게 돌상을 차려주려고 여러 형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가을



이 아빠가 꼭 해주고 싶어 해서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돌잔치를 한다는 허전한 마음은 있었지만, 가을이에게 엄마를 대신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아빠의 마음이겠지요.

가을이가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니 일년 전 가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우리 집으로 왔을 때 '잘 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벌써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사실에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돌잔치 하는 날 가을이가 여러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지요?



2005. 2. 4 / 그놈의 컴퓨터

종민이 어렸을 때 어린 아이가 혼자이니 무료하기도 하고 그때는 어린이 인터넷이 처음 시작된 때라 어린이 동화 동요 사이트를 일찍 보여 주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동화 동요는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게임에 맛을 들어서 컴퓨터 때문에 많이 싸웠었다.

어진이는 될 수 있으면 컴퓨터를 늦게 보여 주려고 했었다. 동요 등화는 잠깐만 보다가 재미없다 싶으면 금방 다른 데로 클릭 해버리니까 참을성 있게 끝까지 있지 못하고 다른 것, 다른 것... 지난번에 종민이 행아가 와서 컴퓨터 하는걸 보고 나서 어진이도 이제 맛이 들었다. 이제 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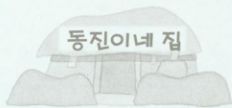


릭 하는 법을 알아서 지가 게임을 찾아서 들어간다. 아직 한글을 몰라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누나에게 때도 쓰고 해서 하는데, 벌써부터 어진이가 컴퓨터 때문에 싸운다. 이제 겨우 네 살인데 게임에 몰들어 가다니, 이놈의 컴퓨터 내다 버릴 수도 없고...

2005. 2. 25 / 라이언킹

할머니가 가지고 어진이를 놀이방에 오전반만 보낸다. 두시엔 집엘 오는데 이놈이 낮잠 안 잔지 오래 됐다. 예전 종민이도 일찍 낮잠을 줄 업더니 어진이도 조기 졸음을 했다.

두시에 집에 오면 저녁 10시까지 하루가 길다. 거실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하고는 놀지를 않고 주로 안방에서 엄마하고만 붙어 있다. 예전에 종민이 보여주던 영어판 라이언킹을 보여 주었더니 어찌나 재미있어 하는지, 내실박이 어린아이가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본다. 틈만 나면 라이언킹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비디오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 2005. 2. 5 / 뽕내 애정표현

주말이고 설 앞이지만 집안이 조용하다. 큰애는 친구 생일파티 가고 작은애는 합기도 승급심사 있는 날이라 늦을 거란다. 오늘 심사를 통과하면 흰 띠에서 노란 띠로 올라간다. 팔아가 합기도 다닐 때도 그랬지만 띠의 색깔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게 아닌가보다.

애기를 바꿔서... 동진이의 애 정표현은 남다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누구나처럼 잠들 때 안아주고 배 아프다 면 배를 만져주고 (거의 피병이었지만) 이모부랑은 뽕굴며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궁둥이 때려달라는 걸로 바뀌었다. 한번은 누나를 칭찬할 일이 있어서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그래그래 이쁜 딸 착하기도 하지"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바빠졌다. 양치하고 나서도, 손 씻고 나서도, 숙제하고 나서도 툭하면 달려와서 엉덩이를 뒤로 숙 내민다. 때려달라고. 그럼 "예구예구 우리 동진이 잘했어" 하고 툭툭... 생글생글 웃으며 다음 칭찬거리를 찾으러 떠난다.

### 2005. 2. 6 / 잘나가는 동진이

어제는 합기도 심사가 늦게 끝나서 밤 9시가 다 되어야 돌아왔다. 7시가 넘으니까 걱정이 되는지 이모부는 바람 쐬다며 도장에도 다녀온 모양이다. 초인종 소리에 열린 문을 열었더니 동진이는 안보이고 합기도복을 입은 여고생이 상장과 트로피를 내민다. "동진이는?" 했더니 그때서야 빙긋이 웃으며 누나의 등 뒤에 서 나타난다.

체육관에서 빵과 음료수 등을 먹었다는데 그래도

배가 많이 고팠나보다. 평소의 두 배나 되는 밥을 먹으며 밥알 핑기는 무용담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상장을 받았나니까 흰 띠에서는 20여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혼자만 우수상을 받았다는 등, 심사에서의 솔기, 낙법, 발차기 등을 밥 먹다말고 해 보인다. 누나는 1단인데도 상은 한번도 못 받았는데 동진이는 벌써 두 번째 상을 받았으니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니 더욱 기세가 올라간다. 연말에 받은 시범상은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니깐 관장님이 이쁘게 봐주셨지만, 어제 받은 승급심사에서의 우수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대구지역 평무관 소속의 체육관이 다같이 모여서 하는 총관의 심사인데다 동진이의 관장님은 심사위원이 아니었다니 나름대로 소질이 있는게 아닌가 싶다.

사실 상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과 인성을 중시하는 합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건강 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켜 골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05. 3. 4 /

#### 초등학교

#### 입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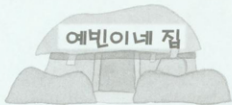
어제 동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배정된 교실로 들어가서 명찰을 받고 번호도 정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간단한 생활과약도 했는데, 동진이에겐 많은 관심을 보이었다.

바른 자세로 앞을 바라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몇 번이나 "동진이는 참 의젓하네!" 하시며 얼굴도 쓰다듬어 주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생활의 출발은 아주 무난할 듯 하다. 지금껏 어린이집이나 합기도장에서의 경험을 보면 단체생활에 적응을 참 잘하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진이에게 말을 걸었다. "동진아, 니네반에 이쁜 여자친구도 한 명 있더라?" 했더니 "나도 안다. 제일 뒤에 앉은 애 말하는거 아이까?" 녀석,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다 챙겨봤네 ㅎㅎ

암튼 동진이의 입학을 축하하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한다.





**2005. 2.17 / 못말려!!!!**

색칠공부와 퍼즐놀이를 즐겨하는 예빈이, 요즘엔 말까지 늘어 얼마나 우습고 시끄러운지...퍼즐놀이 하는 옆으로 지나가다가 내발에 퍼즐 판이 걸려 조각이 하나 떨어졌다. "아이고 미안해!" 하니까 떨어지진 않았지만 조각을 주우며 대뜸 하는 말, "내가 미안하지!"

**2005. 2.17 / 밥 좀 먹자!**

아침에 너무 곤하게 자는 예빈이를 깨우기가 안쓰러워 싹껏 자라고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다. 봄 방학한 언니가 자고 일어나는 예빈이를 보고 "어! 너 어린이집 왜 안갔어?"하고 물는데 아무말 없이 '너는 왜 학교 안 갔는데'하는 표정으로 언니를 빤히 쳐다본다.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니 점심 먹으면서 언니가 또 물었다. "예빈아! 오늘 어린이집 왜 안갔어?" 밥 숟가락 입에 넣으려다 말고 언니를 흘겨보며 "밥 좀 먹자!" ㅎㅎㅎ 입장 곤란한 대답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지 밥으로 알고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언니왈 "너 조금만 더 커라"

**2005. 3.16 / 난 우리집이 좋아!**

어제 친가족과의 상봉으로 낮잠시간을 놓친 예빈이가 친가족이 돌아가고 나니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잠만 자고 일어나 울면서 하는 말, (아빠를 툭툭 치면서)"아빠는 큰아빠가 아니구 그

남 아빠야 아빠" 또 나를 가리키며, "엄마는 그냥 엄마야 엄마 알았지?, 난 \*\*타운 \*\*\*동 \*\*\*\*호(주소) 우리집이 좋아" 하면서 엉엉 운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예빈이 집은 여기야.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밥 먹자." 국에 밥 말아서 지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얹어주니 씹는중 마는중 막 퍼먹으며 계속 운다. 밥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밥 다 먹고 나서 아빠를 끌어안고 한참을 누웠더니 좀 편안해 지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장난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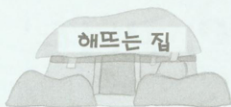
오늘 아침 어린이 집에 가면서 느닷없이 하는말, "예빈이 집은 \*\*타운 \*\*\*동 \*\*\*\*호다 알았지?" 깜짝놀라서, "응? 응! 알았어 잘 갔다 와!" 하니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간다.

예빈이 엄마! 섭섭하더라도 크게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인내하고 예빈이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립시다. 어제는 만나서 반가웠구, 우리집에서 놀다가워서 고맙습니다. 보고싶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편하게...

**2005. 3. 25 /**

**오렌지 싸움**

오렌지 두개와 커다란 배 한개를 짊어 예빈이 앞에 놔주니 신이 났다. 오렌지를 막 먹으려는데 학교 갔다는 언니가 씻으러 들어가며 "예빈아! 언니 오렌지 남겨줘 알았지?" 갑자기 인상이 찌그러지며 못 들은 척 한다. "예빈아! 언니 오렌지 남겨달라고!" 마지못해, "응! 알았어. 씻고와!" 그때부터 갑자기 먹는 속도가 빨라진다. 몇 조각 남지 않았는데, "예빈아! 언니꺼 남겨줘야지?" "....." "예빈아! 언니꺼 남겨달라고 했잖아." "싫어!" "그러면 안되지." 결국엔 다 먹어버렸다. 씻고 나온 언니가 "예빈아! 언니 오렌지 어딴거?" 혼자 오렌지 먹고 입 꼭 닫은 예빈이, 책 한권을 빼들고 읽는 척, 웅얼웅얼...ㅋㅋㅋ 사실은 언니꺼 미리 넣어 놨지롱...



**2005. 3. 2 / 혜성이 왔습니다 ^^\***

지난 밤에 잠을 잤는지 어렸는지 모르겠 습니다. 아침 6시도 되기 전에 혜성이 가 예쁜 아기 울음소리로 잠을 깨 우더군요. 우유를 타서 주자 정 신없이 금방 한 병을 똑딱 먹 어지웠습니다. 그리곤 지금까 지 놀자~ 하고 있습니다. 누나 들은 아침 내내 혜성을 들여 다보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품안 에 안겨있는 걸 좋아해서 자꾸 안아 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어찌 안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팔이 고장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 지근. 남편은 "혜성아! 우리 제발 30분만 더 자자~" 하는데 혜성은 들은 척 만 척.



**2005. 3. 22 / 어제밤에도 못 잤다... 놀았다.**

어제 밤에 혜성이 열이 팔팔. 해열제 먹어서 안고 업고... 열 내리고 나니까 놀란다. 거실에서 한밤중에 2시 간 놀았다. 커다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보여주며 까꿍! 하나까 까르르 넘어간다. 그리고 거실의 거의 모든 물건들을 섭렵하며 언제 아팠나 싶게 신나게 논다. 아침에 혜진이가 날리났다. "집이 너무 어지러워!" 하면서 혼자 치우고 정리하느라고...

이젠 업히는걸 좋아해서 엄마 등 뒤로 돌아가서 업어달라고 한다. 어제 밤에는 몇 번이나 업었다 내렸다가 반복했는지 모른다. 전날 밤 제대로 못한 아빠는 처음에 조금 같이 놀다가 결국 혼자 잠이 들어버렸다. 코까지 골아대면서, 쾌쌌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두었다.

하지만 우리 남편 오늘 아침에 그 멧가를 치루었다. 혜성이가 아빠를 외면하고 엄마에게만 향하는 것이다. 우리 남편 잘못하다간 아들마저 엄마에게 뺏기게 생겼다. 아들은 자기편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그냥 되나...

**2005. 3. 2 / 대호아버지**

대호는 3년 전 나눔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날 아버지를 뵈고 그 동안 통 소식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가끔씩 대호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혼자 말처럼 "아빠 보고 싶다" "대호 아빠 가자" 설이나 추석이 되면 그리움은 더 합니다. 집이 있는 아이들이 모처럼 명절을 지내러 가면 나눔에는 대호와 오복이 오민이 가형이 동육이가 남습니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보챌이 심합니다. "나도 가고 싶어. 대호집 데려다 줘!"

오후에 대호 아버지와 동생 태호가 처음 나눔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란 표정의 대호.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눔에 머문 시간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아빠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아버지, 사랑해!"를 연발합니다. 참 좋은 모양입니다. 대호가 저만큼 행복해지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대호아버지 이제 는 연락을 끊지 않고 명절 때는 데리고 간다고 하니



또 한 번 믿어봅니다. 아토피 나으면 자장면을 먹으러 간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대호는 좋겠다~^^

**2005. 3. 9 / 오랜만에 외출**

소리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방문 창문 다 열고 모처럼 환기를 시켰습니다. 옥상에서는 태양열 보일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료비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장에서 겨울 내내 열심히 일 한 친구들... 이제 떠납니다. 봄을 마중하러 캠프를 갑니다. 목요일 출발, 이를 동안 남원에 머물며 광한루도 구경하고, 지리산 등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복 한이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2005년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8백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이번 음악회는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대안가정에 대해 알리고, 위기에 처한 아이를 맞아들이는 대안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더 생겨나기를 기원하며 개최되었습니다.



▲ 방송인 장인환씨의 사회로 무대의 막이 오르고...



▲ 피아노트리오 (이광호, 김애규, 이수희)



▲ 소프라노 독창 (은제숙)



▲ 혼성 이중창 (김은형, 여정은)



▲ 이끼만띠 남성앙상블의 환상적인 하모니



▲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  
영상 상영 중



▲ 베이스 독창 (김찬영)



▲ 벨레스텔 여성중창단의 감미로운 하모니



▲ 남성이중창 (박종선, 왕의창)



▲ 이영수 교수의 지휘로 장엄한 혼성합창이 울려 퍼지고...



▲ 전 출연진과 대안가정 가족들이 함께 '사랑으로'를 열창

[음악회재정보고]

수입	지출
영진전문대학 2,000,000원	대관료 585,000원
대구백화점 1,000,000원	포스터, 전단, 초대권 제작
법무법인 삼일 1,000,000원	600,000원
불교사회복지회 600,000원	프로그램 제작 500,000원
TCN 대구방송 500,000원	출연진 보상비 2,300,000원
한국케이블TV 대구방송 500,000원	사진촬영 및 인쇄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500,000원	204,800원
(주)모릭스 500,000원	영상물 제작 600,000원
사회복지행정연구회 500,000원	홍보판 제작 240,950원
충성교회 500,000원	현수막 352,000원
이수형 회계사 500,000원	도시락 및 다과 418,330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300,000원	코사지 및 화본 대어
함께가는사람들 300,000원	140,000원
김상대 300,000원	회의비 82,300원
사인프리카 216,000원	자원봉사자 식사비
도재육내과 200,000원	179,900원
(주)월성 200,000원	출장비 106,100원
이종민 200,000원	차량대여 및 교통비
한국임양홍보회 100,000원	215,300원
LG전자에어콘 대구총판 100,000원	배송 및 우편료 255,240원
송광익 소아과 100,000원	잡비 32,800원
김기호 내과의원 100,000원	
이건호 회계사무소 100,000원	
태광공업사 100,000원	
이끼만떡 100,000원	
청우회 100,000원	
이광호 100,000원	
김애규 100,000원	
이수희 100,000원	
이정화 100,000원	
박병수 100,000원	
한미숙 100,000원	
신상운 50,000원	
박종문 50,000원	
강다선 50,000원	
손분득 50,000원	
이국진 30,000원	
이두옥 30,000원	
최창수 30,000원	
정한교 30,000원	
이해영 30,000원	
윤정희 20,000원	
<b>계: 11,586,000원</b>	<b>계: 6,812,720원</b>

## ■ 현황 및 소식

### □ 상담내용별 현황

구분	아동복지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계	이동·친부모 연락	신규 신청	신규 의뢰
	아동·가족 의뢰	아동·가족 상담	대안가정 연락	상담 연락	행정 연락	주요 연락	타기관 연락	기타					
1월	14	10	8	13	1	-	7	7	60	-	4	7	
2월	7	5	12	21	1	1	3	3	53	-	3	2	
3월	8	20	6	29	2	1	18	7	91	1	4	4	
분기계	29	35	26	63	4	2	28	17	204	1	11	13	

### □ 상담유형별 현황

구분	연락		합산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1월	41	10	6	3	-	60	
2월	50	2	-	1	-	53	
3월	77	2	6	4	2	91	
분기계	168	14	12	8	2	204	

## ■ 본부소식

### • 2005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총회

2월 17일(목) 오후 7시,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총회가 전직타워 웨딩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안가정 가족들도 참석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200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개정 ▲임원선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총회를 마친 후, 대안가정 가족들의 합창과 장기자랑,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진 이사님들의 남성중창과 장효점 상담원의 율동으로 모두를 즐겁고 따스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 2005 상반기 이사회

3월 9일(수) 오후 7시, 대안가정운동본부 교육실에서 상반기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의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홍보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기관 방문

4월 16일(토),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기관방문을 왔습니다. 대안가정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후에 결혼해서 대안가정이 되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 • 이동유공자 표창 수상

제83회 어린이날을 맞아 김혜경 어머님(어진이네 대안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유영희 어머님(예빈이네 대안가정)은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아이들 소식

### • 동진이와 태호의 입학 축하합니다.

동진이와 태호가 3월에 초등학교 입학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 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초등학교생이 되었네요. 동진아, 태호야! 입학 축하하고, 학교생활 즐겁고 재미있게 하길 바랍니다.

### • 민지가 귀가하였습니다.

대안가정의 갑작스런 집안일로 민지의 양육이 힘든 상황이라 3월 28일 친가정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아파를 만나서 좋아하던 민지... 오빠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랍니다.

### • 동욱이와 가은이가 귀가하였습니다.

3월 30일 동욱이와 가은이가 할아버지댁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욱이와 가은이를 돌보느라 수고 많으셨던 동욱이네 대안가정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안가정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이 이만큼 자랄 수 있었습니다. 동욱아! 가은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 ■ 외부행사

###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추진방향 설명회

2월 16일(수)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2005년 아동정책 추진방향 설명회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다녀왔습니다. 설명회는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대한 설명, 민간단체 강사들의 가정위탁, 아동학대, 입양 등에 관한 강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가정위탁 보호사업 실무과정 교육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가정위탁 보호사업 실무과정 교육에 정민정 상담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기관 방문

■ 1/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5년 1월~3월)

이사회비		회비		후원회원 회비	
김규원 90,000	김현희 30,000	이원삼 30,000	이원삼 30,000	TCN 150,000	김경희 30,000
백승균 90,000	김호근 15,000	이유미 15,000	이유미 15,000	김종표 10,000	김경호 10,000
송광익 150,000	김취동 40,000	이윤근 300,000	이윤근 300,000	고병민 30,000	곽은섭 30,000
우국현 90,000	나눔회 60,000	이문재 30,000	이문재 30,000	곽한숙 30,000	권영환 15,000
윤재식 90,000	동진산업 60,000	이달영 30,000	이달영 30,000	권용한 15,000	권동후 150,000
이병희 60,000	문순기 30,000	이재성 60,000	이재성 60,000	권일섭 30,000	권정숙 30,000
이수형 600,000	박대산 30,000	이지은 30,000	이지은 30,000	권효성 10,000	김병태 60,000
이왕욱 90,000	박기호 60,000	이준희 30,000	이준희 30,000	김경숙 30,000	김경현 30,000
이태원 150,000	박대순 30,000	이현숙 30,000	이현숙 30,000	김경현 30,000	김광재 30,000
정영옥 90,000	박문숙 20,000	이혜영 30,000	이혜영 30,000	김근남 30,000	김기철 15,000
	박미경 30,000	이해진 15,000	이해진 15,000	김기철 30,000	김기철 30,000
	박미자 60,000	이호용 60,000	이호용 60,000	김낙원 30,000	김낙원 30,000
	박성현 20,000	이효은 30,000	이효은 30,000	김동익 10,000	김동익 10,000
	박선연 30,000	임아정 15,000	임아정 15,000	김명국 30,000	김명국 30,000
	박연규 30,000	임영진 25,000	임영진 25,000	김명기 30,000	김명기 30,000
	박옥란 30,000	임익성 15,000	임익성 15,000	김명희 30,000	김명희 30,000
	박인주 40,000	임진규 15,000	임진규 15,000	김민원 10,000	김민원 10,000
	박지현 100,000	장경아 5,000	장경아 5,000	김복희 10,000	김복희 10,000
	박찬준 30,000	장정은 20,000	장정은 20,000	김영국 30,000	김영국 30,000
	박혜숙 90,000	장명철 30,000	장명철 30,000	김영기 30,000	김영기 30,000
	박해국 30,000	장병화 30,000	장병화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배성훈 30,000	장오익 30,000	장오익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배창환 5,000	전해영 40,000	전해영 4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배태순 60,000	정경란 60,000	정경란 6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백기종 30,000	정미옥 60,000	정미옥 6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백석환 30,000	정용성 30,000	정용성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빈은선 20,000	정은주 10,000	정은주 1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서숙 30,000	정희우 15,000	정희우 15,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서진천 150,000	조윤주 90,000	조윤주 9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송성라 30,000	조현정 15,000	조현정 15,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송계우 10,000	진사오 210,000	진사오 21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송창섭 10,000	채승욱 30,000	채승욱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신병규 10,000	최경호 30,000	최경호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신은정 20,000	최흥진 15,000	최흥진 15,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심진환 20,000	최상근 30,000	최상근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심현순 15,000	최원창 90,000	최원창 9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안의진 50,000	하정욱 60,000	하정욱 6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안춘숙 15,000	한국계이텔TV 100,000	한국계이텔TV 10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안이정선 30,000	한미경 50,000	한미경 5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양덕근, 김배경 60,000	한은희 30,000	한은희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오길수 30,000	허유희 30,000	허유희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오찬현 30,000	홍동표 30,000	홍동표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오찬현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우연경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우연경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유은정 5,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유은주 2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유호상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윤창국 1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건호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규련 5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문기 6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미선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미숙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병호 15,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성유 2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상용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상훈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성희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순업 2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신자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영선 1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영환 15,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영화 4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영희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이옥화 30,000			김영희 30,000	김영희 30,000

■ 1/4분기 재정보고

세입		세출			
관항	목	결산액	관항	목	결산액
회비		7,685,000	사무비		10,536,190
회비	7,685,000		인건비	7,988,980	
이사회비	1,500,000		급여	6,294,220	
정회원회비	420,000		제수당	800,000	
후원회원회비	5,765,000		보험부담금	894,760	
후원금	7,878,700		업무추진비	1,268,440	
후원금	7,878,700		직책보조비	8,500	
일반후원금	3,306,000		회의비	1,259,940	
특별후원금	4,572,700		운영비	1,278,770	
			여비	127,500	
			수용비	287,310	
			공공요금	535,490	
			연료비	239,000	
			잡비	89,470	
			사업비	5,233,720	
			일반사업비	5,233,720	
			상담사업	92,300	
			대안가정지원	672,000	
			출판홍보사업	2,863,710	
			회원사업	50,000	
			음악회	1,555,710	
			상환금	1,000,000	
			부채상환금	1,000,000	
			원금상환금	1,000,000	
총계	15,563,700		총계	16,769,910	
전년도 이월금	3,692,217		잔액	2,476,007	
합계	19,245,917		합계	19,245,917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는 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음악회 재정은 별도 보고

## [대안가정 기초부모교육]

대안가정 기초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초부모교육은 대안가정의 목적과 절차 등, 가정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대안가정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안가정이 되고자 준비하시는 예비 대안가정 부모님은 물론, 대안가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 일 시 :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 ♣ 장 소 : 대구대학교(대명동 캠퍼스)
- ♣ 대 상 : 예비 대안가정부모,  
대안가정에 관심 있는 분.
- ♣ 참가비 : 무료
- ♣ 문 의 : (053)628-2592
- ♣ 홈페이지 : [www.daeanhome.org](http://www.daeanhome.org)



##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434, 603, 616, 623, 650, 750, 808, 836, 906  
좌석 306, 600, 608